

2026. 3. 6

해외동향부 (제 7398)

■ 주요 뉴스: 이란의 보복 공격, 걸프만 전역으로 확산 미국의 강경 입장 지속되고 유가는 급등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예상치 하회. 법원은 관세 환급 절차 개시 명령
- EU, 역내 생산 강조한 산업가속화법안 공개. ECB 인사들은 금리인하에 신중
- 중국 전인대, 금년 성장률 목표 하향. 당국은 휘발유 및 경유 수출 금지를 지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동 정세 불안 증폭, 국제유가 급등 등이 영향

주가 하락[-0.6%],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이란 전쟁의 주변국 확산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1.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주간 고용지표,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반영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ECB 금리인하 관측 후퇴 등으로 9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81.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82.4원, 0.98% 상승).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3/5일	3/4일	전일대비			3/5일	3/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30.7	6,869.5	-0.56%	국제금리 10y	미국	4.14%	4.10%	+4bp
	유럽	604.83	612.71	-1.29%		독일	2.84%	2.75%	+9bp
	중국	4,108.6	4,082.5	+0.64%		영국	4.54%	4.44%	+10bp
	일본	55,278	54,246	+1.90%	CDS 5y	한국	25bp	27bp	-2bp
	한국	5,583.9	5,093.5	+9.63%		중국	45bp	45bp	-0bp
달러지수		99.05	98.77	+0.29%	위험지표	EMBI+	-	270	-
유로화		1.1609	1.1634	-0.21%		VIX	23.75	21.15	+12.29%
환율	엔화	157.59	157.06	-0.34%		WTI유	81.01	74.66	+8.51%
	위안화	6.9113	6.8971	-0.21%	원자재	구리	573.9	585.5	-1.99%
	원화	1,468.1	1,476.2	+0.55%		금	5,082.3	5,140.4	-1.1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이란의 보복 공격, 걸프만 전역으로 확산. 미국의 강경 입장 지속되고 유가는 급등

- 로이터 등 주요 언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이라크 앞바다에 있는 유조선을 공격했고, 쿠웨이트에서 정박하던 한 유조선에서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 이란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 북부에 있던 미국 유조선도 공격했다고 발표. 이 외에 UAE,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도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 및 드론 공격이 발생
- 이란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거론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아들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발언. 또한 쿠르드족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찬성한다고 언급. 다만 쿠르드족에 대한 구체적 지원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첨언. 일부에서는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이 본격화되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
- 백악관은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 한편, 주요 언론들은 국방부가 이번 전쟁을 위해 50억달러를 이미 지출했고, 500억달러의 추가 지출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미군 당국이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한다고 분석
- 전쟁의 확산 우려로 국제유가는 급등(브렌트유 85.4달러 +4.9%, WTI 81.0달러 +8.5%). 다만,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 관련 기대 등으로 장마감 후 유가는 상승폭 일부 축소. 한편, 이스라엘은 對이란 공격이 2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 이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탄도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을 의미
-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는 지중해 중동 동맹국 지원, 자국민 안전 확보, 홍해의 선박 보호 등을 위해 해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발표. 그러나 이번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반면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 이는 EU가 러시아 전쟁자금을 끊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추진한 것에 대한 보복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예상치 하회. 법원은 관세 환급 절차 개시 명령

- 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1.3만건으로 전월비 보합을 기록했으나 예상치(21.5만건) 하회. 이는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低해고, 低채용 국면임을 의미. 한편, 법원은 행정부가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하고, 6일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 작년 12월 중순 기준 관세 징수 규모는 1300억달러

■ 미국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인준안 제출. 일부 연준 인사는 인플레이션 경계

-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원에 공식 제출. 일부 공화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이번 인준은 난항이 예상. 한편,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는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의 고용 개선을 고려하면 연준의 리스크 전망은 바뀔 수 있다고 발언

■ EU, 역내 생산 강조한 산업가속화법안 공개. ECB 인사들은 금리인하에 신중

- 집행위원회는 유럽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가속화법안을 공개. 특히 이는 전기차 등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일정 비율 이상 유럽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한편, 유로존 1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1% 감소
- ECB 라가르드 총재는 정해진 통화정책은 없으며, 매 회의마다 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 다만, 드 갈로 위원은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 ECB 권도스 부총재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

■ 중국 전인대, 금년 성장률 목표 하향. 당국은 휘발유 및 경유 수출 금지를 지시

-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는 금년 성장률 목표를 4.5~5.0%로 제시하고, 구조조정, 리스크 방지, 개혁 추진을 위한 여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과 동일한 GDP의 4%로 결정했고, 이는 적극적인 지출 확대 의지로 해석
- 한편 당국은 관련 업체들에게 경유 및 휘발유 수출을 중단하도록 지시. 이는 이란 전쟁으로 중동産 원유 공급의 차질을 대비한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고용보고서 및 1월 소매판매, 유로존 4/4분기 GDP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이란發 유가 급등 피해는 과거와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 - 블룸버그

(This Oil Shock Hits Differently for the US)

- 이란 전쟁으로 과거와 같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그러나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항목 중에서 연율 4% 이상 상승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 또한 임금상승률도 3.8%로 '22년 6.8%와 비교해 낮은 수준. 이는 유가 급등을 고려한 임금상승 요구 및 물가상승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
- 그러나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인력 감축에 나설 소지. 또한 가계 재정은 이미 소비 여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한다면 이번 유가 상승은 과거 사례와 같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유발보다는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 최근의 유로화 약세, 여타국 대비 유로존이 에너지 충격에 취약함을 방증 - 블룸버그

(Euro's Slide Shows How Energy Shock Is Deepest Vulnerability)

- 이란 전쟁으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 경제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이 부각. 이를 반영하며 이번 주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약 2% 하락. 전문가들은 에너지 충격 지속 기간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유로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전망(1유로당 1.10~1.12달러, ING)
- 향후 유로화 환율의 향방은 이란 전쟁의 전개 양상이 좌우할 전망.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및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은 ECB의 금리 전망에 변화를 초래하지만, 영란은행의 금리인하 보류와 상대적으로 작은 일본 및 호주 국채수익률 변동폭 등을 고려한다면 유로화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증시의 아시아 매수 및 미국 매도 전략, 이란 전쟁 등으로 재평가 필요성 제기 - 블룸버그

(Iran War Punctures Strategy of 'Sell America, Buy Asia')

- 이란 전쟁으로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매도 및 아시아 주식 매수 전략”을 재평가. 아시아 지역은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위험 존재. 또한 지속적인 공급 충격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져 아시아 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
-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 지위와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자금 유입이 예상되지만, 아시아는 금융 여건 악화 등에 직면할 우려(Amundi). 아울러, 달러화 강세로 인한 자금 유출중앙은행 통화정책 제약 등도 아시아에 불리한 요인

- **현명한 장기 투자, 과잉반응 자제 및 지속적인 신기술 관심 등이 중요 - Financial Times**
(On ignoring geopolitics, buying bubbles and hoarding gold)
 - UBS에 따르면 장기 투자자는 지정학적 이벤트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 세계대전·오일쇼크 등은 영향을 남겼지만 주가에 큰 타격을 준 사례는 드물었고, 장기적으로 잡음을 무시하고 버틴 경우 오히려 성과가 우월
 - 신기술 분야는 거품 논란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입증. 과거 철도 및 닷컴 버블 사례처럼 개별 기업이나 특정 기술은 쇠퇴하더라도, 기술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 보유할 경우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가 가능
 - 금은 장기 수익률이 주식·채권보다 낮고 변동성도 높아 단순 장기보유 자산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헤지 성격도 제한적. 다만 시장 급락 및 경기 침체기에 방어력이 강하므로, 경기 국면에 따라 리밸런싱 자산으로 활용 가능
- **세계 각국, 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맹목적인 對美 경제 협력을 재고 - Financial Times**
(Iran attacks show the perils of following America's economic lead)
- **가파른 미국 생산성 향상, 인력 감축노동 시간 단축 등 부정적 요인도 부각 - 블룸버그**
(The Dark Side of a Productivity Boom Is Just Now Coming to Light)
- **사모대출 시장의 핵심 리스크, 부실대출보다 유동성 압박 - 블룸버그**
(Private credit is learning all about liquidity)
- **세계 최대 비료 생산지 중동의 혼란, 전세계 식량 부족을 경고 - Financial Times**
(Fertiliser disruption from Iran conflict prompts global food shortage warnings)
- **아시아 AI 수혜국, 에너지 중동 편향 위험 인식 및 대응책 마련 등이 요구 - 블룸버그**
(Hormuz Is the Hidden Risk to the AI Economy)
- **중국 AI 관련주의 부진, 미국 기업 위주 글로벌 자금투자 유입 등을 반영 - 블룸버그**
(If China AI Is So Great, Why Aren't Its Tech St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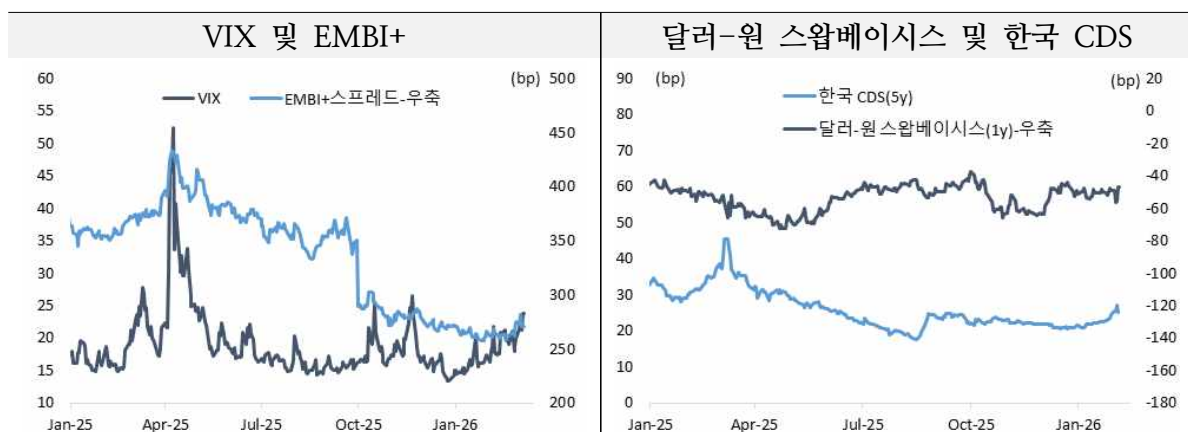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